

지역 소식통

김제시 보건소, 예비맘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에 게 △산후부부 무료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난임 진단검사비, △난임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예비)부부이다. 검사 항목은 일반혈액검사, 식전 혈당검사, 면역검사, 소변검사 9종 45개 항목이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겐 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해서 △난임 진단검사비 최대 30만원(부부합산),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원, △낭종난자 보존생식술 최대 200만원, △한반 난임치료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결산심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지난 4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결산심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산심사 역량강화 교육은 김제시 상·하수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재 공인회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문 회계사를 초청했으며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분야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용어 및 회계처리 방식과 예산 총괄표 및 지출 예산 항목의 분류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했고 이번 교육을 통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자 의장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만큼이나 우리 시의 재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완주군이 소상공인 카드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사업장으로 최대 30만원(2023년 카드매출액의 0.5%)을 지원받게 된다.

단, 폐업했거나 타 도·시·군으로 이주한 사업장과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공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송미경 경제기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평선 새마루 '문 열다'

지역농산물 활용 건강 먹거리 등 제공... 김제시 새로운 랜드마크 예감

구 동진강휴게소가 주민편의형 휴게공간과 음식점 등을 갖춘 지평선 새마루로 새롭게 개편하며 내방객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5일 김제 죽산면 월죽로 8(서포리 577-40번지) 일원에서 주민 및 내빈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 새마루'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김소영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개관기념 퍼포먼스 등 공식행사와 시설관람으로 진행됐으며 지역활동그룹이 개발한 제품 판매와 홍보 등 플라마켓과 체험프로그램이 부대행사로 펼쳐졌다.

시는 지난 1992년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 변에 주유소와 휴게·편의 시설을 갖춘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구 동진강휴게소가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 등 주변 환경 변화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비(7억원)를 추가 투입해 '지평선 새마루'로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지평선의 새로운 함터를 의미하는 '지평선 새마루'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지난 5일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8(서포리 577-40번지) 일원에서 주민 및 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 새마루' 개관식이 열렸다.

문화 콘텐츠가 있는 주민 편의형 휴게공간과 음식점 등 수익공간 운영을 통해 내방객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1,273㎡ 규모의 '지평선 새마루'에는 1층과 2층에 음식점과 편의점, 먹거리부스(3개), 카페 등의 시설이 입점해 5일부터 운영하고 이외에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북 카페, 수유실, 전담 데스크, 트리하우스를 활용한 포토존, 전기차 충전소, 모경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휴

게 컴퓨터 인가를 모아 시민들의 친근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스마트 복합유통터 내 조성된 '지평선 새마루'가 김제시의 관문으로서 여행객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플라마켓, 체험행사,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김제푸드를 활성화하여 농촌활력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한다"

정례회 본회의서 결의문 채택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천과 기준이 무시되는 통합에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남용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채택했다.

서남용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완주군은 이제 군(郡)에 옷을 벗고 시(市)로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며, 전북 최초의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결의문 발의 사유를 제시했다.

서 의장은 "이미 3차례의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불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이라는 정책으로, 완주군에 불합치하고 있는 전주시장과 전주권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통합이 전주시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두 지자체 간 갈등, 지역 간 마찰, 시민단체 간 반목을 야기하는 등 주민의 화합을 해치고 완주군의 발전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절



완주군의회가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차가 선행돼야 하고, 통합 이후에도 사회적 비용과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완주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도시 각 분야의 역량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장은 "완주군은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이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합논의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합보다 경제적 효과와 발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장은 "전주시와 전주시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면서 "완주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균형 발전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합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면서 "완주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균형 발전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대둔산 축제 8일 개막

9일까지... 완동·삼선계단 인증·인공암벽·먹거리 등 가득

삼선계단, 구름다리, 마천대까지 볼거리도 즐길 거리도 풍부한 대둔산을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완주 대둔산축제가 산악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난해 13년 만에 부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둔산축제는 올해 더욱 알차게 돌아왔다. '어디든 도전해봐, 대둔산'을 주제로 대둔산 완동, 삼선계단 인증, 인공암벽 등반 등 다양한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8일 개막식에는 완주군 명예군민인 가수 현진우의 축하공연과 <한잔해>의 박곤 공연이 펼쳐진다.

먹거리, 체험, 농산물 판매 등 47개 부스도 마련된다.

생맥주와 마린안주, 닭꼬치, 닭발을 비롯해 수제과일젤라또, 과일착즙주스, 수제버거, 에그토스트, 호두과자, 소떡소떡, 홍시 슬러시, 치즈볼키치, 반미샌드위치, 분식 등 군침이 절로 도는 다양한 먹거리가 구비된다.

또한 완주의 로컬푸드도 구입할 수 있다. 농산물부스에서는 흑숫감, 생강오란다, 도라지청, 참송이버섯, 벌꿀, 청국장, 딸기잼 등을 만날 수 있다.



축제기간 인근 상가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도 있다.

케이볼기는 2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고, 대둔산 호텔 사우나는 30%를 할인한다. 인근 음식점의 모든 메뉴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무료 셔틀버스는 전주역, 완주군청, 운주초, 운주중, 배티재에서 운행된다. 주차장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운주초, 운주중, 완주군청을 이용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6월은 완주가는 달' 최고 40% 할인

완주군-한국관광공사, 숙박 및 체험시설 할인 이벤트 진행

6월 한 달 동안 완주군의 대승한지마을, 궁위팔취한옥리조트, 카리반 아미존 등 대표 관광지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5일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가는 달(6월) 캠페인'을 맞아 통 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할인 이벤트에 이어 6월에도 전북에서는 가장 많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관내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최소 10%에서 최고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는 소양고택, 대승한지마을, 카리반아미존, 경천애인마을, 카리반아미존, 호텔원, 더플래시호텔, 궁위팔취한옥리조트, 오성한옥마을문화센터

숙박관 등에서 1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산자연휴양림은 무료입장, 놀토피어는 20% 할인 입장료를 산속등대박물관공간은 2,000원 할인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지 정보와 세부 할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적 여행 분위기를 확산해 관광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안한 여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목표 초과 달성

김제시, 체납액 집중·책임 징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체납액의 집중·책임 징수로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당초 체납 징수 목표액인 9억1,400만원을 초과한 11억 3,300만원을 징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해, 작년 동기 대비 시세 징수율이 20.0%에서 30.3%로 10.3%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 기간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등록된 연락처로 체납 알림 문자를 발송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했다.

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했다. 시는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 262대(체납액 4억4,400만원)를 영치하고 그중 212대를 반환해 총 1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추가로 올해부터 '시·읍면동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각 읍면동에서 50만 원 미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독려, 체납고지서 발송 등 자체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일조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세정과 전 직원과 읍면동 세부담당자들이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액 징수와 민원응대를 위하여 정말 애썼다"며 "일제정리 기간이 끝났음에도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김제시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더 이상 불필요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초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부과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4일 충남 논산 일대에서 김제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인 '청춘, 통하였느냐 시즌6'을 진행했다.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 '청춘, 통하였느냐!' 운영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는 지난 4일 충남 논산 일대에서 김제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인 '청춘, 통하였느냐! 시즌6'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춘, 통하였느냐!'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 8번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울감이 있는 노인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청소년이 정서적 소통을 통해 상호지향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마음정화 작용을 위해 기획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진단을 통해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6명과 청소년 6명을 짝꿍으로 매칭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춘, 통하였느냐!'는 노인과 청소년이 서로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짜꿍 정하기(파티너십), △추억 공감하기(Ditto해오

(포토존 사진찍기), △짜꿍 공감하기(짜꿍에게 편지쓰기)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 학생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대화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저를 손주처럼 대해주시어 저도 모르게 남달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B 어르신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활동은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손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이 필요한 노인과 청소년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 활기찬 정신건강자립의 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